

에스디바이오센서,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성공리에 마무리

- ▶ 메리디언社 인수로 본격적인 미국 진출 계획
- ▶ 연내 10개국 직판 체제로 확장
- ▶ 신제품 'STANDARD M10 FAST RT-PCR, CGMS' 등 런칭 계획 발표

글로벌 체외진단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(137310, 각자대표 이효근, 허태영)가 10 일(현지시각) 제약·바이오 업계 최대 행사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업 비전 발표와 1:1 미팅을 진행하며 첫 데뷔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.

■ 메리디언社 인수로 본격적인 미국 진출

에스디바이오센서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공식 초청을 받아 10 일(현지시간) APAC&LaTam 섹션에서 발표했다.

이 날 발표에는 조혜임 에스디바이오센서 전무가 연단에 올라 “미국 시장 진출과 추가 M&A 를 통해 글로벌 체외진단기업과 경쟁할 것”이라는 포부를 밝혔다. 지난 해 인수 결정한 메리디언 바이오사이언스社 (이하, 메리디언社)는 크게 LS(Life Science) 사업과 DX(Diagnostics)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. LS 사업 부문은 PCR, Enzyme, 항원, 항체, 의약품 원재료 생산 및 공급에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. 여기에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진단 플랫폼 연구개발 능력을 더해 원재료 개발부터 생산까지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 DX 사업은 특히 미국에서의 높은 시장 점유율로 GI(Gastrointestinal, 소화기) 패널, 납 중독 진단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 포트폴리오에 더해 진단 플랫폼을 강화할 생각이다.

또한, 조혜임 전무는 “양사의 주 거점과 생산 공장, 유통망을 합치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을 커버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조혜임 전무는 “메리디언社 인수 목적은 현지 생산 및 유통망 활용, FDA 등록 가속화를 통해 미국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는 것”이라고 밝히며 “미국 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 자동화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.”라며 미국 진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.

■ 연내 10 개국 직판 체제로 확장

최근 에스디바이오센서의 화두인 M&A 관련해서 조혜임 전무는 “글로벌 유통망을 넓히기 위해 전략적 M&A 를 할 것이며, 연내 최소 10 개국은 직판 체제로 확장할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 에스디바이오센서 2021 년부터 꾸준히 사업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해왔다, 그 결과, 브라질 'ECO'社를 시작으로 독일 'Bestbion'社, 이탈리아 'Relab'社를 차례로 인수하고 영업 직판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. 현재 미국 메리디언社의 인수로 Deal closing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의 M&A 는 R&D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업체나 해외진단업체 유통사를 위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■ 신제품 'STANDARD M10 FAST RT-PCR, CGMS' 등 런칭 계획 발표

아울러 신제품에 대한 공개도 있었다. RT-PCR의 정확도는 유지하고 검사시간을 50% 단축시킨 'STANDARD M10 FAST RT-PCR'을 연내에 출시해 시장 점유율 15%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.

조혜임 전무는 “연속혈당측정기(CGMS)는 2024년 국내를 시작으로 남미, 유럽, 미국 등에 런칭할 계획이다. 또한,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차세대 당뇨병 토탈 솔루션 시스템의 일환으로 All-in-one CGMS를 곧 출시해 사용자들이 포도당뿐만 아니라 케톤, 산소포화도, 락타아제의 정보를 한번에 측정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히며, 또한 “CGMS 데이터를 통합해 인슐린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AI 기반 인슐린 펌프 기능도 함께 탑재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컨퍼런스 기간동안 다수의 투자자들과 사업개발 및 투자 관련한 1:1 미팅을 진행하는 등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첫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.